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 및 방향 : 김희백 사범대학 교무부학장 인터뷰

단과대학탐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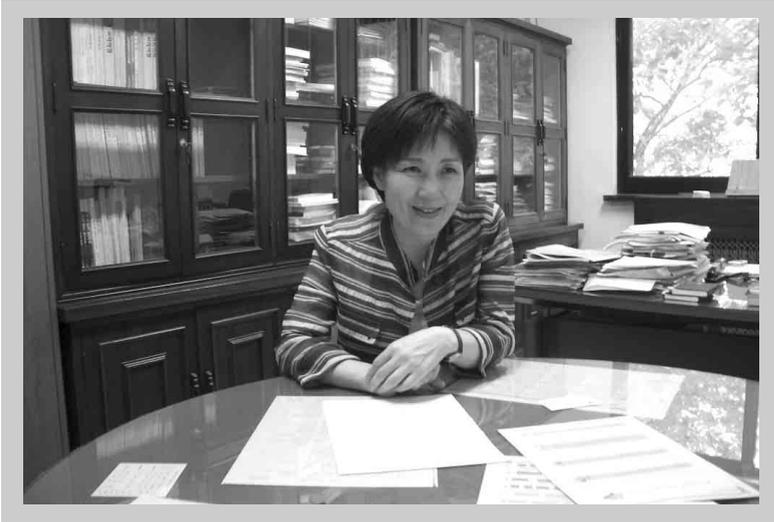
1895년 설립된 한성사범대학을 모태로 한 사범대학은 1946년 국립서울대학교가 창설될 당시 핵심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현재까지 교육이론과 교육실천이 접목된 역량 있는 교원의 양성기관이자 교육과 학문의 중추기관으로 발전해 오고 있다.

사범대학 교무부는 역량 있는 교원 양성과 교육과 학문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사범대의 교육목표 달성을 위해 교무부가 어떠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사범대학의 교무 정책 및 방향에 대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사범대학의 교무 정책 및 방향은 교육목표의 달성과 밀접합니다. 사범대학은 우수 교사와 교육 전문 인력 양성, 교과교육과 교육학 관련 의창의적 연구진행, 그리고 교육문화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교무부에서는 이러한 교육목표와 관련된 업무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8월부터 학과별로 발전 방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각 학과별로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실제로 그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고, 교육과정들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어떻게 지원해주면 좋을지에 대한 안을 작성합니다. 사범대학은 작은 종합대학과 같은 형태이므로 교수·학습과 관련하여 일괄적인 정책을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학과별로 발전방안을 만들고, 그것에 따라 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범대학이 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어떤 활동들을 하는지 소개해 주십시오.

먼저, 우수 교사와 교육 전문 인력 양성이라는 교육목표와 관련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범대학의 교육과정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까, 학생들이 잘 배울 수 있을까에 관한 고민과 대답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교수님들의 경우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교단에 섰을 때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 있을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며 가르치고, 학생들은 워크숍이나 실습의 형태로 가르치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사범대학의 교육과정에 내재하고 있는 이러한 활동은 학생들로 하여금 우수 교원으로서의 자질을 성장시킴과 동시에 교수자들 본인의

강의 개선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범대학은 학생들에 대한 이해와 진로지도를 위해서 학부학생을 대상으로 담당교수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담당교수제는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탐구력 향상을 위해 1학년을 대상으로 2명 내지 3명의 학생이 한 교수님을 담당교수로 신청하는 제도로, 주로 연구 지도 및 진로상담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1학기에 신청을 받았고, 2학기에 실제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것이 업적에 반영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범대학 내 40% 이상의 교수님들이 여기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좋은 교육이 학생의 이해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점에서 볼 때, 이와 같은 높은 참여율은 저희 사범대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교과교육과 교육학 관련의 창의적 연구진행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 사범대 연구의 질적 수월성 제고를 위해 신진교수대상 제도를 2007년 2학기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박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내의 조교수급 교수님을 대상으로 선발하고, 매년 천원씩 3년간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지원액이 많지는 않습디만, 이 제도가 사범대학 연구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해당 학문 분야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둘째, 대학원생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박사학위논문에서 국제심사위원을 포함시키도록 계획했고, 학과별로 우선 도입할 학과들은 실시를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심사 방법으로는 심사위원이 물리적으로 직접 오지 않고도 가능하도록 비디오 컨퍼런싱 시스템(Video Conferencing System)을 통한 화상심사나 우편을 이용해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비디오 컨퍼런싱을 하게 된다면 교수학습지원센터의 시설¹⁾을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문화발전에 이바지하는 차원에서 멘토링(Mentoring)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멘토링 제도는 멘토 신청을 한 학생들과 사회적으로 소외된 초·중·고등학생들을 연계한 봉사활동제도입니다.

1) 현재 학내의 83동, 43-1동, 61동에는 실시간으로 화상 회의를 할 수 있는 비디오 컨퍼런싱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며, 2008년 봄부터 본교와 동경대학, 북경대학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공동 강의의 시작할 예정이다(「가르침과 배움」, 2007년 여름호, 「학내 기관 탐방: 대외협력본부」 참조).

봉사활동을 통한 사회참여차원에서 기획된 것으로, 서울대 학생과 소의 학생과의 연계 활동에 참여했던 멘티의 만족도가 높았을 뿐 아니라, 멘토 학생들 역시 멘토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일단은 사범대학 주도로 단과대학에 관계없이 지원자를 신청 받아서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사범대 학생의 경우에는 이 제도의 이수를 의무화하려고 합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009년부터 모든 학생에 대한 봉사학점을 의무화함을 고시하였는데, 저희는 이것을 미리 준비한 셈이 됩니다.

교수님들이 연구 이외에 강의 및 교육에 쏟는 노력들이 제대로 업적 평가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는데, 사범대학에서는 교수님들로 하여금 강의의 질을 높이도록 동기유발시키기 위해 어떤 정책 및 전략을 마련하고 있는지요?

사범대에서도 강의 및 교육에 쏟는 노력은 업적평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범대 교수님들은 교육을 잘하는 것은 교수로서 해야 하는 기본 의무 사항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범대의 교육과정은 좋은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구에 대한 압박감에도 불구하고 강의보다 연구에 치중하는 분위기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저희 사범대의 여러 교수님들이 교사전문성에 대한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학교 현장에서 수업을 녹화하고 관찰하고, 이렇게 얻은 자료를 분석하면서 좋은 수업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내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좋은 수업을 결정하는 요소들을 추출하고, 그런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요소들을 교사 교육과 연계 짓는 연구들을 하십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강의를 통한 교육의 질 개선이 연구와 별개로 여겨지지 않으며, 따라서 강의 및 교육에 쏟는 노력들이 업적 평가에 반영이 되지 않음에도, 이것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교수학습개발센터와 사범대학이 협업을 한다면, 어떤 측면에서 가능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범대 각 전공의 교수님들은 어떤 수업이 좋은 수업이고 어떻게 해야 학생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가에 대해 이론을 기반으로 한 실천적인 지식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으십니다. CTL에서 교과 영역별로 세분화하여 교수법 워크숍을 개설한다면, 사범대 교수님들의 좋은 수업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이 강의에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 사범대 교육을 함에 있어 비디오 컨퍼런싱 시스템과 강의 녹화 서비스 등²⁾의 CTL의 제반여건들은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디오 컨퍼런스는 일단 대학원생의 역량강화를 위한 논문 국제심사에 유용할 것이라 여겨지고, 강의를 녹화할 수 있는 시스템은 교수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강의를 점검할 수 있고, 학생들은 녹화된 동영상을 통해 반복학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유용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이러닝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울러 활성화를 위한 제안사항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교육에 있어 이러닝을 활용하는 것은 이제 대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에서 제공해주는 e-TL 시스템이 편리한 반면, 기존에 구축해 놓은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교수님의 경우에는 기존 자료들을 e-TL로 옮기는 데에 번거로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배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 : 이혜정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e-Learning 지원부 연구조교수)

2) 강의 개선을 바라는 본교 교수와 강사를 위해, CTL에서는 강의를 촬영하여 강의 개선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http://ctl.snu.ac.kr>에서 강의 촬영 및 분석 참고), 강의 촬영, 강의 촬영과 분석, 그리고 마이크로칭 워크숍의 세 가지 서비스를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